

# 인도네시아, BCA 정부지분 매각협상 타결

## 1. BCA(Bank Central Asia)<sup>1)</sup> 정부지분, Farallon Capital에 매각

### □ 금년 3월 14일에 BCA 정부지분 매각이 최종 결정

- 인도네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BCA의 인수자로 결정된 미국계 Farallon Capital(FC)은 영국계 Standard Chatered Bank(SCB)와 경합을 벌였음

- 입찰가격 : 5억 4,000만 달러 상당
- 입찰조건 : 최초 정부지분 30%는 우선 인수, 나머지 지분 21%는 6개월 이내 인수예정
- SCB 인수제시 조건 :  
입찰 제시가격은 FC의 주당 1,775루피아(1월 28일자 입찰가 기준)보다 다소 높았으나 기타 인수조건<sup>2)</sup>은 FC보다 불리하였음

### □ BCA 매각의 주요 진행과정

- 1997년 외환·금융위기 이후 IMF 차관조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행사항으로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BCA 정부지분(51%)을 매각 완료할 계획이었으나, 다소 지연되었음
- 금년 들어 정부는 국영기업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

1) 800여 개의 지점과 21,000여 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상업은행으로 Salim Group의 소유였으나 1997년 외환·금융위기 IMF의 차관 지원조건에 따라 매각대상이 됨  
 2) 추가발생 손실에 대해서 인수가격의 15%를 escrow account 설정 요구, 나머지 지분 21%는 금년 12월 말까지 인수제시

운데, BCA 매각과 관련하여 **은행재편청(IBRA)**이 입찰 과정에 불합리하게 개입하려 했으나, FC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BCA 매각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됨

## 2. BCA 매각은 인니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

### □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 표명

-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개혁이 비로소 가시화됨에 따라, 국가 신용도 및 파리클럽 채무재조정(금년 4월 예정)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
### □ 재정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

- IMF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,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**민영화 수익 증대** 가능
  - 금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 : 2.5%
- 추가적인 자산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 예상
  - 예상되는 매각대상 국영기업 :  
Bank Niaga, Telekomunikasi Indonesia(국내전화 교환회사),  
Indonesian Satellite Corporation(국제전화 교환회사) 등